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여기 저기에서 가정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돈을 못 번다. 성깔이 안 맞는다. 성격만족이 없다는 등 별의별 이유가 이혼사유로 등장한다.

옛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던지셨지만 이제는 자식도 버린 채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린다. 가정은 해체되고 가족만 남는다. 바르지 못한 가치관이요, 여권신장이다.

이때를 당하여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의 선진국 미국의 예를 들여보자.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미국의 루즈벨트는 39세가 됐을 때에 갑자기 쇼아미비에 걸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었다.

루즈벨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 하던 루즈

아내의 역할

이중희 민주평등 포천시협의회장



벨트의 아내 엘레나는 비가 많이 오다 그친 맑게 갠 어느 날 남편 루즈벨트에게 권해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됐다.

루즈벨트의 기분이 오래 간만에 모처럼 한껏 좋아졌을 때 엘레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 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이 시련

은 더 겸손하게 맑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어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보,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됐소. 그래서 당신의 고생은 몇 갑절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소?”

그러자 엘레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

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아내의 이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됐다. 그래서 장애자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뉴딜정책으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과 긴밀히 연합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이 됐다. 이것은 위대한 아내의 힘이었다.

이 나라의 아내들이 엘레나 입장이면 어떨을까?

결혼이나 연애가 서로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너무 세상 물질 모르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웬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한국BBS 경기연맹 포천시지회



불우청소년에게 삶의 의욕 심어줘



나근수 지회장

지난 16일 오전 경복중학교, 포천초등학교, 영중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은 한국BBS 경기연맹 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과 민현숙 사무국장이 직접 나섰다. 중학생에게는 35만원, 초등학생에게는 3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경복중학교 3학년 이기택 학생에게 35만원을 전달했다. 이 군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힘들었으나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천초등학교 5학년 한경주 학생에게도 3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영중중학교 1학년 최나



① 한국BBS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이 경복중학교 이기택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② 한국BBS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이 포천초등학교 한경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③ 한국BBS포천시지회 나근수 지회장이 영중중학교 최나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원영입 조직강화로 활발한 활동 펼칠 계획

현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학금 35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성금전달식은 한국BBS포천시지회에서 100만원의 성금을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으며 이 금액을 한국BBS포천시지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성금은 한국BBS경기연맹 포천시지회에서 마련했고 어려운 학생 추천은 포천경찰서가 맡았다. BBS는 경찰청 등록단체이기 때문이다. 우정과 봉사물 주요임무로 하고 있는 BBS는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의 약자다.

불우 청소년, 문제비행청소년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그들의 친구로서, 형으로서, 부모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일을 한다. 1904년 미국 뉴욕에서 BBS운동이 처음 시작됐다.

BBS강령은 ▶BBS위원은 우정과 양식을 가지고 대상 청소년의 좋은 친구가 된다 ▶BBS위원은 모든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반성하고 노력한다 ▶BBS위원은 힘과 마음을 합하여 명랑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이며 BBS신조는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편견을 버리고 따뜻하게 맞는다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갖는다 ▶대상 청소년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등이다.

BBS 포천시지회는 비행청소년, 불우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갖도록 우애와 봉사정신으로 형제자매 결연을 맺고 보호 선도하고 있다.

관인면 출신 이진식 서울시의원 재선 성공



포천시 관인면 출신 서울특별시의원 이진식(53·사진)의원이 5·31지방선거에서 동작구제4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관인면 냉정1리 출신으로 관인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나라당 동작(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2004년 6·5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동작구 제4선거구에 출마해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포천시 관인면에서는 이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어 축하하고 있다.

중등부 영중중 고등부 동남고 우승

제2회 포천시축구협회장배 중고 축구대회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포천종합운동장과 대진대학교에서 개최돼 중등부에서 영중중학교, 고등부에서 동남고등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중등부는 이동중, 동남중, 일동중, 영북중, 포천중, 갈월중, 영중중학교 등 7개학교가 참가해 영중중학교가 우승, 갈월중학교가 준우승, 영중중 이경민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고등부는 동남고, 일동고, 포천고, 포천일고, 영북중고, 관인고 등 6개학교가 참가해 동남고등학교가 우승, 관인고등학교가 준우승, 최우수선수상은 동남고 이보원 선수가 차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건축의 의미

장덕철

해동 흥건축 학교장



건축이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건축이 과연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번 이야기는 건축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건축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

건축은 우선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막아 주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면(관공서나 상업건축은 일단 제외하고) 가장 먼저 집을 사람들에게 비바람과 눈보라와 뜨거운 더위 등의 사람들의 생존에 불리한 자연력으로부터 막아주는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하나의 (막이)가 필요하다.

소위 프라이버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이상한 동물이어서 (부끄러움)을 타는 이상한 심리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끄러운 행위를 할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럴때 집은 (커튼)역할을 한다. 즉, 집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편하게 쉬고, 먹고, 자고, 생각하고, 배설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이다.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이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편안하기도 하지만 집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그래서 <편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건축의 2대 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건축은 이러한 2대 요소이외에 또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가까운 절에 가보면 대웅전을 가가전에 먼저 <사천왕문>을 거치게 된다.

<상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가까운 절에 가보면 대웅전을 가가전에 먼저 <사천왕문>을 거치게 된다.

사천왕문 안을 들여다 보면 칼과 창을 든 장수들이 무서운 눈으로 매섭게 내려다보고 있다. 그 장수들이 하는 역할은 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악귀들을 모두 내쫓는 역할이다.

집을 통해서 (정신적인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는 것이다. 천하대장군의 목상도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건축의 갖고 있는 <상징성>인 것이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갖는 목적은 (물리적인 악조건)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집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아무리 못사는 사람들도 집을 나름대로 꾸미는 것을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상징성>인데 그것을 건축의 <정신적인 요소>라 한다.

그러면 건축과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는 건축 격언이 있다. <사람이 집을 짓고, 집은 사람을 짓는다>

이 말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떤 연설에서 한 내용이다.

정치가가 건축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집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어진다. 이 경우 사람이 능동적인 위치에 있고, 집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일단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낸다. 그 시간속에서 사람들은 <집>이란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집은 능동적인 위치에 있고, 사람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의 사람의 인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건축과 사람들의 관계이며, 그래서 집은 매우 신중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다.



동성유니테크

최첨단 설비 · 우수한 기술력이 함께하는
코끼리표 동성천(면) 테이프

◆접착 테이프

◆수입 마스크

◆순간접착제

◆스프레이 · 락카

◆우레탄폼

◆양면 테이프



Tel. 031)532-8004

Fax. 031)532-5792